

부

‘소여 밀러 그룹’ 이미지 정치로 전 세계 선거전 승리

〈美 정치 컨설팅업체〉

알파독

제임스 하딩 지음



파이낸셜타임스의 워싱턴 국장이었던 제임스 하딩은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취재하던 중 칼 로브를 만났다. 부시를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 로브는 당시 부시-제니 선거본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런 로브에게 한 기자가 “당신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미지 정치, 미디어 선거를 비롯한 정치판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그 가방만 열리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제임스 하딩의 책 ‘알파독’은 어떻게 전 세계 선거판을 장악했는가?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하딩은 TV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이미지 정치의 세계화에 주도적이었던 정치 컨설팅 업체 ‘소여 밀러 그룹’의 행적을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통해 파헤쳤다. 이 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로브의 책략이 바로 소여 밀러 그룹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여 밀러 그룹은 영화제작자 데이비드 소여와 카피라이터 스콧 밀러가 함께 만든 정치컨설팅 업체이다.

책의 제목 ‘알파독’은 원래 망보는 개의 무리 가운데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는 개에서 유래된 말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알파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과 비열한 방법을 쓰는 사람, 신념을 고취시키는 사람과 속임수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막대한 보수를 받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



‘소여 밀러 그룹’은 1997년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선거전략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 만들기’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1997년 대선 유세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 네거티브 전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만 펠리핀에서처럼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무보수로 헌신하는 소여 밀러의 모습은 알파독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1986년 필리핀이 독재자 마르코스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평범한 주부였던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떠오른 그 무대의 뒤편에는 소여 밀러 그룹의 치밀하고도 타원한 선거전략이 숨어 있었다.

소여 밀러 그룹은 이후에도 1988년 철레 피노체트 군부의 8년 연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달리 리마와 레흐 바렌사 등 5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 정치 전략을 제공하면서 정치 컨설팅 업체로 명성을 높였다.

소여 밀러 그룹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1986년 김대중과의 만남이다. 아키노처럼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한 민주 투사였던 김대중에게 이들은 필리핀의 승리를 TV를 통해 얻은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알파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과 비열한 방법을 쓰는 사람, 신념을 고취시키는 사람과 속임수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하려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소여 밀러 그룹은 이를 김대중의 이미지

를 바꿀 수 있는 결호의 기회로 여겼다. 패배를 인정한 것은 당당하고 격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들은 1995년부터 김대중의 정계 복귀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김대중 재단의 설립을 돋구고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옮기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세웠다. 결국, 김대중은 1997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저자는 정당보다는 인물,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선거 전략이 스타벅스처럼 표준화·세계화되면서 세계의 정치 문화를 바꿨다고 지적한다. TV를 이용해 정치 등 주요 이슈를 거실로 옮겨 유권자를 정치에 끌어들이기 했지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외면하는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 오늘날 정치는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과학기술이 일으킨 혁명의 문턱에 있다고 말하며 이제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소여 밀러의 이야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긴다.

〈부기·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눕-상대를 뛰어들어보는 힘

샘 고슬링 지음



당신의 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당신의 책상에 놓여 있는 물건, 당신이 넘겨 준 흔적들이 바로 ‘당신’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텍사스대 심리학 교수 샘 고슬링이 펴낸 ‘스눕-상대를 뛰어들어보는 힘’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장소와 물건을 통해 개인의 성향, 취향, 지적 수준, 가치와 습관, 꿈과 희망이나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양한 사례와 실험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책의 제목 ‘Snoop’은 원래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 ‘꼬치꼬치 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저자는 이

당신의 소지품·흔적만으로 ‘당신’을 알 수 있다

단어를 ‘직감을 넘어 과학적으로 상대를 읽는다’라는 개념으로 활용했다.

저자는 ‘자기 정체성 주장’, ‘감정 조절’, ‘행동양식의 잔여물’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다.

생활공간은 그 사람만의 방식을 나타내는 특정 자가 정체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공간 역할을 한다. 저자는 또 사람들이 주위에 물건을 늘어놓거나 주변 환경을 꾸미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행동양식의 잔여물’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일상의 행동을 통해 생활 공간에 남기는 다양한 흔적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커피찌꺼기가 말라 붉은 채 오랫동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커피잔은 셋기 귀찮아하는 어떤 사람의 생활방식을 알려주는 흔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침실과 사무공간 등을 면밀히 탐색하고, 해당자와 그 주변인들을 인터뷰해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저자는 상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단서들 가운데 ‘의미있는 것’을 골라내고 가짜들을 걸러내고 기술이라고 말한다. 또 골라낸 단서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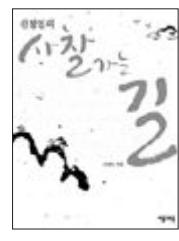
이 책에 소개된 연구 성과는 EBS 다큐 프라임 ‘인간탐구 대기획당-신의 성격’ 편에서 집중 조명됐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찰·암자 비경 소개

신정일 여행 에세이



문화사학자로 (사)우리땅걷기이사장인 신정일씨가 우리 산하의 사찰과 암자의 비경, 문화유산을 소개한 여행 에세이집 ‘신정일의 사찰 가는 길’과 ‘신정일의 암자 가는 길’을 냈다.

2000년 푸른숲과 2001년 사암과 산에 출간된 ‘나를 찾아가는 하루산행’ 1권과 2권을 복간하는 의미를 띤 책으로 월간 ‘사찰과 산’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엮었다.

21군데의 사찰, 24곳의 암자를 선정해 그곳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고, 여행하면서 느낀 자신만의 생각 등을 꿈꿔기 기록했다.

〈자금과모음·각권 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 5·18과 바나나=역사가이자 한국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 안후상씨가 쓴 역사 수업 ‘잡담’ 모음집. ‘잡담’ 수준이라고 하지만 근현대사 수업 부교재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1980년 5월 고교 수학 여행을 다녀온 군인들이 차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사았던 노란 바나나가 시커멓게 변했다는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하늘북·1만원〉



▲ 노무현이, 없다=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면면을 추억했다. 시인 도종환, 신부 송기인, 만화가 정훈이씨 등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18명이 털어놓은 ‘사람 노무현’의 이야기다. 기존의 책들이 전기·정치사상 면에 치우친 것과 달리 노무현의 인간적인 모습을 주로 담아냈다. 〈학고재·1만5000원〉



▲ 나체의 차라투스트라를 찾아서=오랫동안 나체를 연구해온 철학자 이진우씨가 나체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삶과 사유를 여행한 ‘철학적 기행문’이다. 나체의 생가가 있는 레온에서부터 베를린, 라이프치히, 로마 등 나체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여정을 9개의 장으로 엮었다. 저자는 직접 찍은 풍부한 사진 자료가 나체 철학과 여행의 여정, 저자 사유의 결합을 돋는다. 〈책세상·1만6000원〉



▲ 천국에서 온 편지=‘상도’ ‘해신’으로 유명한 작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와 함께했던 42년 세월의 이야기를 담았다. 작가는 이른 나이에 노부관을 여이고 평생 자식 뒷바리지로 하다 세상을 떠나 간 어머니의 삶을 회상한다. 철없는 어린 시절에 어스름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작가는 시와 편지, 사진 등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누보·1만2000원〉



▲ 그곳에 집이 있었을까=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서사적 소설가 예니 에르멘베크의 신작 장편 소설. 20세기에 걸친 베를린 근교의 한 호숫가 집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사소한 개인들의 역사를 묘사함으로써 인류 전체를 뛰어넘는 거대한 역사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율음문화사·1만원〉



▲ 서른이 넘으면 왜 항상 피곤할까=의학 저널리스트인 구스비야시 노부마사가 나에게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인지, 부담 없이 스트레스와 힘을 기울 수 있는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소개했다. 다양한 음식 섭취가 몸에 미치는 영향,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의 차이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특징 등 체력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해 알려준다. 〈민음인·1만2500원〉



▲ 나 마음대로=소설가 알랭 드 보통이 추천하는 심리학 에세이. 심리학자 코렐리아 파인이 다양한 심리학 실험과 인지과학의 최신 성과, 자신의 일상과 각종 시사적인 사건을 두루 엮었다. 심리학 실험을 소개하면서도 자루함을 날려버릴 유머 감각과 위트를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다. 〈공존·1만5000원〉

분석

골프회원증

광주CC

No.J0101169

김순덕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한

아리율공인증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국 서예안, 새만금 전문업체)

세인금·복사·고시포·리프·상록·도록·해수점검까지의 투자 범위

▶ 펜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월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점검 주변으로 배산입수

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

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일진지역을 물파

하고 한기로운 전원 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

로 펜션투자지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는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밤조제 개통으로 지

금이 투자기!

▶ 경찰 공인증개사

016-632-5659, 011-782-6266 T.222-4994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 감정가 이하

• 병원건물, 삼무지구 중심지, 대지 1010㎡(305평) 건평 3156㎡(954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 매도 40억

• 동구 6차선도로와 3차선도로 2로 코너 대지